



제목	Byzantium and the Turks in the Thirteenth Century
발행언어	영어
발행처	Oxford University Press
발행일	2014. 11. 25.
저자	Dimitri Korobeinikov
출판도시	Oxford
페이지수	400
ISBN 또는 ISSN	978-0198708261

내용 요약

『13세기의 비잔티움과 튀르크인』은 니케아 제국의 부와 권력, 비잔틴인, 셀주크인, 몽골인의 관계를 밝히는 책이다. 동부 지중해와 발칸 지역의 3, 소아시아의 절반을 차지하였던 비잔틴은 1204년 4차 십자군 후 니케아로 이주하였다. 1261년 비잔티움을 회복한 니케아 제국은 1250년대부터 셀주크에 대항해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다. 하지만 셀주크의 권력이 쇠퇴하고 동부에서 온 튀르크인이 세력을 키워나갔다. 몽골인들이 서부 아나톨리아 지역에 무관심한 틈을 타 그들은 비잔틴의 변경 지역에 강력한 유목민 공동체를 형성하였다. 1304년 유목민 튀르크인이 비잔틴의 동부 변경을 장악함에 따라 비잔틴은 소아시아를 영구히 잃어버렸다. 14세기 초 비잔틴 제국은 작은 발칸 국가에 불과했다. 저자 코로베이니코프는 그리스, 아랍, 페르시아, 오스만의 사료를 활용하여 비잔틴인들이 새롭고 복합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응해 나갔는가를 보여주려고 하였다.

책은 총 7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. 1장은 '사료', 2장은 '니케아 역설', 3장은 '룸의 술탄 지위: 예비적인 논평', 4장은 '니케아와 셀주크의 관계'를 담고 있다. 저자에 따르면 셀주크의 술탄들은 전통적인 이슬람 정치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승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힘들어 했다. 또 비잔틴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외교적 파트너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. 5장 '몽골인'은 술탄에 대한 몽골의 지배 형태, 몽골과 비잔틴의 결혼동맹을 서술하였다. 6장 '반란의 시대: 비잔틴의 소아시아 상실'은 안드로니코스 2세(Andronikos II 1282~1328 재위)의 무능을 지적한 장이다. 7장은 '영향: 1303년 이후의 소아시아'를 담고 있다.